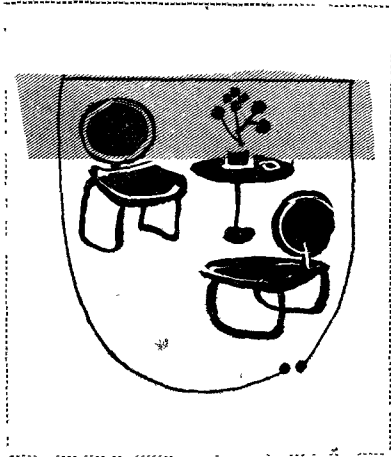


畜産觀의 再考

조 용 희
<영남대학교 농축대학교수>



새로운 자원전쟁이후 식량무기야 말로 석유무기에 버금가는 무기로 돼 버렸다. 세계곳곳에서는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와 아사자들의 발생이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 되고 있다. 새삼 「탈사스」의 인구론을 비웃으며 소비가 미덕이라고 부르짖던 인간의 못대가 무색해질 정도로 인간은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다. 우리도 매년 7~8억불의 외화를 소비하면서 식량을 도입하여야만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식량부족은 필연적으로 축산업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인간이 당장공부를 채울식량도 부족한데 이것을 가축에, 먹여 단백질을 생산하여야만 할까? 우리나라 사료자원도 도입곡류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장기 축산진흥 계획을 수정한다. 새로운 축산정책에서 외국 의존도가 높은 닭, 돼지를 감소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1. 인구와 식량문제로 제기된 주장들

밀기울을 앞에 놓고 이를, 돼지가 먹을 것인가 사람이 먹을 것인가에 대해 왈부 왈부하고 있으니 실로 딱한 노릇이다.

먹을 거리는 적은데 입(口)은 한 없이 불어가기만 한다. 약 39억이라는 지구상의 인구는 BC 3,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4번이나 곱절씩 불어온 숫자이다. 처음 2배로 붓는데는 무려 3천년이란 긴 세월이 소요됐지만 두번째는 2백년, 세번째는 80년, 네번째는, 45년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이다. 이와 같이 급속도로 불어가는 인구는, 앞으로 32년후인 서기 2007년에 또 다시 현재의 두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UN인구연감이 밝힌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급증하는 인간이 먹고 살아야 할, 식량(食糧)의 확보 문제는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식량부족으로 인한 빈곤·영양실조·질병·아사·나아가서는 사회적 불안 전쟁의 위협등에 대해서는 구차스럽게 거론해서 일일이 숫자로 나열할 필요조차 없다. 「세계인구회의」·「세계식량회의」도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를 극복하지 못했고 우리나라 부인회의 「임신 안 하는 해」도 말로만 쉬운데 지나지 않았다.

최근에 접착된 이야기는, 식량부족의 원인이 인구 증가와 악천후에 의한 흉작에 있다고 한다.

인간은, 삼라만상을 손에 쥔 창조주의 뜻을 알지 못하며, 제한된 토지에 「수확체감의 법칙」을 오늘에 와서도 인정할 도리 밖에 없다. 그래서 작황(作況)의 판단은 관상대(觀象臺)의 추계(推計)가 농산당국의 조사보다 정확하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인구 증가율 2%와 구매력 증대분 0.5%를

합한 2.5%의 식량증산을 매년 거듭해야 함은 인류의 크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인구증가력을 식량증가력의 수준에 머물도록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제한 해야한다는 말사스의 교훈이 강조된다. 「말사스」는 이렇게 말했다. 남녀간의 정육은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두면, 인구는 식량 보다 훨씬 불어서 드디어는 이 사회에 죄악과 빈곤을 안겨 주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빈곤을 스스로 사는 부도덕(不道德)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자연의 형벌을 받는 것과 같다 따라서 빈곤의 원인은 빈민(貧民) 자신에게 있으므로 빈민이외의 어떤 사람에게도 문책할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이러한 「말사스」의 이론이 부유한 선진국들에게는, 그들이 보는 미래세계(未來世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이론적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는 이러한 2세기 전의 고정관념에 대해 반박의 소리가 드높으니, 그 소리들은 이렇다. 브라질은 끝없이 광활한 황무지를 개척할 인구의 증가가 보다 절실하다고 했고, 중공은 현존하는 8억의 인구를 지금도 거뜰히 먹여 살린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인도는 자기를 50명이 먹고 살 생존자료(生存資料)를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불평한다. 그러므로 인구 증가를 일률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중요한 과제는, 기존자원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분배하느냐에 있다고 한다. 더우기, 인간의 생활수준 향상은 인구출산률(人口出產率)을 감퇴 시켰음이 서구(西歐)의 역사적 현실이 증명하고 있으니 이른바 말사스의 이론과 베오 말사스주의의 공리인 인간생식능력 강대 불변설(人間生殖能人強大不變說)은 만부득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국제화시대(國際化時代)에서 약소국의 정치경제는 약소국 자신에 의해서 움직인 다기 보다 오히려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해 지배되므로, “빈곤의 원인은 순전히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말사스」 식의 주장은 논리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듯 잡다한 의견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인구와 식량의 문제는 계속 중요시 되고 있다. 인구와 식량의 문제는 너무나 많이 거론되어 온 나머지 차라리 이 문제를 재론함은 실증을 느끼게 까지 하고 있다.

2. 식량과동이 제기(提起)한 축산

설상가상으로, 최근의 식량부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비료와 농약의 부족과, 가축사료의 증가라고 한다. 그래서 가축사료의 소비는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했고, 근본적으로 축산문제도 재고 되어야 한다고 한다. 사람도 먹기가 어려운터에 귀중한 곡식을 가축에게까지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세계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1969~1973년 사이에 가축사료로 소비한 곡물은 총 3억7천4백만 톤이라고 하며, 이는 중공과 인도 두나라가 식량으로 소비한 곡물량 보다 많다고 한다. 굶어 죽겠다는 개발도상국의 아우성을 생각하면 선진국의 가축사료 소비는 지나치게 많은 감이 없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는 막대한 무역수지적자를 감수 하면서, 까지 연간 7~8억달러의 식량을 현찰로 도입하는 형편이다. 우리가 연간 소비하는 양곡 7천 1백만섬중 약 2천만섬을 다른 나라로 부터 사들이는 것이다. 이토록 많은 식량의 도입량중에는 약 $\frac{1}{6}$ 의 사료곡물이 포함 되어 있어 이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 요망되고 있다.

사람의 식량을 구하기도 힘겨운터에 가축의 사료까지 사들여야 함은 분명 재고(再考)되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축산정책의 방향을 초식가축 증식 시책으로 바꾸고 농후사료의존 가축을 억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도입 옥수수의 양을 당초 계획 53만톤에서 40만톤으로 했다. 그리고 간접적인 증산책으로 밀가루의 수율(收率)을 80%로 올리고 쌀의 도정도(搗精度)도 7분도로 내렸다.

그러나 인간 생활은 책상위에서 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초식가축을 장려함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오히려 대책이 미미한 감이 있다. 그러나 돼지와 닭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료 도입량을 한 칼에 $\frac{1}{4}$ 씩이나 줄이고, 대안(代案)이 불확실한 가운데 밀기울과 쌀겨 마저 줄여서 사료품귀를 촉진시키니 자칫 심각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 두렵다.

사료가 부족하고 비싸면 축산의 규모는 줄어들 것이고, 가축이 줄면 사람의 식성(食性)이나 생활방식이 변하지 않는 한 가축 값은 떨어 것이 틀림 없다. 그리고 가축의 값이 오르면 보리쌀도 쌀도 가축에게 먹일 수 있다. 사람의 식량을 짐승에게 못 주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도, 쌀을 먹여 기르더라도 축산의 수지가 맞지만한다면, 근본적으로 이를 막아낼 도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최근에 가축사료로 보리쌀을 쓴 경험이 있으며, 엄한 법의 처벌을 무릅쓰고 밀도살 밀반입을 한 사례를 얼마든지 보고 들었다. 그리고 당장에 변화무쌍한 배합사료를 구입하지, 않고, 안가(安價) 보리쌀을 주원료로 자가 배합사료를 만들고 여기서 이익계획을 세우는 양돈가를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식량증산의 방향을 주곡 위주로 돌리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사료도입을 중단하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밀기울도 사람이 먹자고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기는 식량이 아니고 단순한 기호품이라고 하며 축산 따윈 장려할 필요도 없는 것 처럼 말한다.

모두가 식량증산과 소비절약을 위한 제언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 만큼 실현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증산의 방향을 주곡 위주로 돌리라고 하지만 지속적인 주곡증산은 유기질 비료를 더욱 필요로 한다. 사료 도입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바람직한 말로서 중학교 학년도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렇게 못할 형편이니 딱할 따름이다. 그리고 밀기울도 사람이 먹자고 하지만 굶을 지경이 아니면 자기자신부터 먹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고기는 식량이 아니라고 하지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밥 그릇이 작아도 되더라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으며 육류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식물이 내려간다는 예를 통계자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3. 필요한 축산, 발전할 축산

축산물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 3~7배량의 식물성을 소비하게 함은 부당하다고 하는 축산배척론이 대두된 이때 축산업계는 마치 눈치밥 먹는 의문자식 인양 안절부절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은 계속 성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필히 장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가축의 분뇨는 농토의 생명을 재생시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후손에게 유전되는 한 창조주로부터 물려 받은 잡식성의 생리적 구조는 변질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인간이 생존과 성장을 계속 추구하는 한 기본적인욕구충족(欲求充足)은 무시 당할 수 없는 것이다.

바야흐로 인류는 고도의 물질문명사회에 도달했다. 인류는, 의식주를 비롯해서 모든 생활에 놀랄만한 물질적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물질 문명이 성장확대(成長擴大)됨에 따라 공해(公害) 자원고갈(資源枯渴) 핵확산(核擴散) 등 많은 파괴요소에 의하여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구미의 일부학자들은 앞으로의 GNP성장율을 0로 하자는 이른바 「제로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식물이 될 수 없으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는 미국 「포드」 대통령 말처럼,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는 이상 성장하고 또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생리적 동기(生理的動機)와 사회적 동기(社會的動機)가 있다. 전자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자기유지(自己維持)를 꾀하려는 종류의 것이요, 후자는 성장·자기실현·보다 풍부한 만족 등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주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러한 동기는 인간행동(人間行動)을 지배한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다. 사람에게 긴장상태(緊張狀態)가 생기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적당한 운동을 한다. 그러므로 기갈 상태에서는 음식을 구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영양이 모자라면 특정한 영양물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데이비스(Davis)」라는 심리학자는 실험을 통해, 이유(離乳) 무렵의 배고픈 아기에게 여러가지 음식물을 주니 용케도 영양분이 많은 것을 골라먹더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다. 때로는 전혀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것을 먹는다. 이런 태도는 영양을 요구하는 유기체의 요구에서 분명히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왜 옛날 어릴 때 먹던 음식에 불평을 가하며, 더욱더 고상한 미각(味覺), 후각(嗅覺), 시각(視覺)을 더듬게 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이 단순히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문화적 목적이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인간의 식생활은 단순한 만부감(滿腹感)이나 균형된 영양만의 추구가 아니다. 문화적 사회적 욕구 충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향긋한 과일을 더욱 많이 찾게 되고, 덩덩한 쌀 보다는 짜릿한 고기를 찾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풀이나 풀씨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되고, 그런 결과 풀이나 곡식을 가축에게 먹여 육류를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름덩이 보다는 살고기를, 허벅지 살 보다는 등심살을 돼지고기 보다는 쇠고기를 찾게 된다.

인간의 생활이 경제적·문화적·사회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이상 양적식품(量的食品)→질적식품(質的食品)이라는 하나의 체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막상 전부가 굶주림에 직면하지 않는 한 사람은 질적 식품인 축산물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농후사료 의존형(濃厚飼料依存型)인 돼지와 닭만을 억제 한다 해도, 수요자가 이들을 요구하는 한 돼지와 닭은 사람의 식량을 얻어 먹으면서라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복잡한 신체적 조적을 가진 유기체이다. 이러한 유기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식

(榮養食)으로서의 축산물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필요도 없다.

축산물은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영양식품임과 동시에, 식욕(食欲) 미각(味覺)·쾌적(快適)·과시(誇示) 등 정서적동기(情緒的動機)를 충족 시키는 문화식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축산물은 영양분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비싸다 할지라도 소비자는 이를 계속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부족한 체력 때문”이라는 쓰라린 패배의 변(辨)을 되새기는 우리는, 아직도 연간 한사람이 고기를 6kg도 채 못먹고 있다. 한 사람이 연간 100kg이상 먹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턱 없이 모자라는 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낭비론(畜産浪費論)은 일부비축산인(非畜産人)의 입에서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연간 1인당 7kg이상인 설탕의 소비량에 비한다면, 육류소비량은 실로 어이 없이 적은 양이다. 더구나 설탕은 현대문화병의 근원이며 원료를 전량비싸게 도입하는 비식량(非食糧)이다. 하등의 식량도 아닌 설탕이나 커피를 도입하는 가를 안다면 사료도입에 그토록 입방아를 찧어낼 필요가 없지 않는가.

축산은 낭비가 아니라 증산이며, 내일을 위한 힘의 축적이다.

지금은 자원전쟁(資源戰爭)의 시대다. 버려둔 산들의 천연자원을 뜯어 먹고 귀중한 유자원(乳資源)을 생산하며, 하수구에 들어가는 쓰레기로 귀중한 육자원(肉資源)을 생산하는 축산이 어찌하여 소비산업(消費産業)으로 지목될 수 있는가.

국민의 건강과 체력은 앞날의 영광을 약속한다. 축산은 식량을 더 많이 소비한다고 치자. 비록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축산물을 먹고 국민체력이 향상되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금메달을 따 올 수 있다면 축산은, 어찌 단순한 식량의 낭비라고만 볼 수 있겠는가.

그런가 하면 축산은 식량증산에 항구적인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다.

증산을 목표로 개량한 「통일벼」와 「아끼바

레」는 다비성(多肥性)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수확품종을 빠른 속도로 보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논에는 금비와 농약으로 덮어 씌웠다. 화학비료의 투입량은 해마다 증가한 나머지, 모처럼 자급달성에 도달했던 우리나라의 비료는 71년 이후 계속 자급율이 떨어지고 있다. 급속도로 불어가는 화학비료의 과다시비(過多施肥)는 농경지를 산성화·노후화·시키고 이로 인한지력 감퇴는 계속증산에 위협을 주고 있다, 그래도 녹비(綠肥)의 생산은 미미하기 그지 없고, 퇴비(堆肥)의 중요성을 강조(強調)함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농토의 비옥도를 나타내는 유기질함량은 일본의 6%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불과 2.5%에 지나지 않는다.

유기질 함량 0.1%를 높이는 데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된다는 계산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증산의 속도를 화학비료 시비량으로 비교하려고 들며, 정녕 필요한 문제는 소홀히 다루면서도 축산의 식량낭비 문제는 걸핏하면 거론하곤 한다. 유기질 비료가 곧 퇴비와 구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가축의 분노는 보다 중요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인류가 생존하는 한 축산은 존속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발전과 함께 축산도 발전 할 것이다.

축산은 낭비하지 않으며 축산은 자원을 활용한다.

축산은 내일을 약속하는 힘의 축적이며, 식량의 증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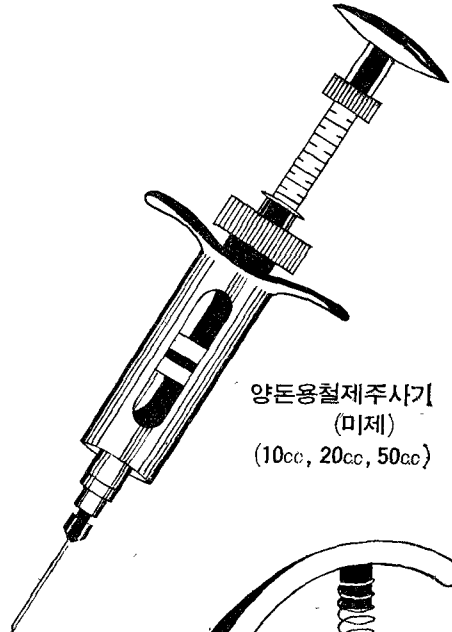
축산은 인류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식품(文化食品)의 생산이다. ■

※ 양계인의 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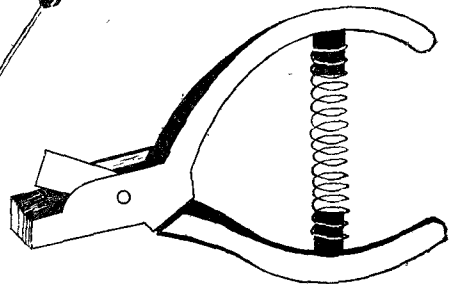
- 월간양계
- 월간양계 합본
- 양계경영일지

新輸入

양돈용 각종 철제기구입하



양돈용철제주사기
(미제)
(10cc, 20cc, 50cc)



양돈 단이기(이각기)
(미제)

양돈용 이표기
양계용 연속주사기

양계 양돈 육우 유우용 동물약품 전문점

덕수가축약품상사

주소 서울 중구태평로 2가344 3
전화 28-6798, 28-0645